



미 증시, 애플 급락, 고용 경계심리 등으로 혼조세

미국 증시 리뷰

6 일(수) 미국 증시는 주간실업지표 개선 등에 따른 고용시장 호조 소식, 중국 정부의 애플(-2.9%) 규제 확대 등이 성장주를 중심으로 약세 압력을 가했으나, 이후 낙폭과대 인식성 매수세가 유입됨에 따라 하락폭 축소하며 혼조세 마감 (다우 +0.2%, S&P500 -0.3%, 나스닥 -0.9%).

업종별로는 유틸리티(+1.3%), 부동산(+0.7%), 경기소비재(+0.5%) 등이 강세, 기술(-1.6%), 소재(-0.4%), 산업재(-0.3%) 등이 약세. 애플(-2.7%)은 중국 정부가 정부 소속 공무원에 이어 국영기업, 공공기관 근로자들 대상으로까지 아이폰 사용 금지령을 내릴 것이라는 외신의 보도로 급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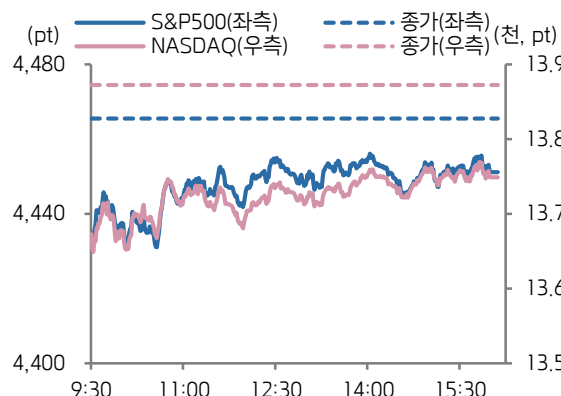
이 여파로 퀄컴(-7.2%), AMD(-2.5%) 등 여타 반도체주도 동반 급락하면서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2.0%)도 약세. 이 같은 중국 정부의 규제는 미국과의 기술분쟁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중국의 외국산 제품에 대한 기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보는 시각들이 존재.

미국의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는 21.6 만건으로 전주(22.9 만건) 및 컨센(23.4 만건)을 모두 하회하면서 올해 2 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 2분기 비농업부문 생산성은 3.5%(QoQ)로 전분기(-2.1%)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했으나, 컨센(3.7%)은 하회. 2분기 단위노동비용은 2.2%(QoQ)로 전분기(4.2%)에 비해 임금 압력이 낮아졌지만, 컨센(1.6%)은 상회.

미 노동부 측은 생산량(+1.9%)이 늘어난 반면, 근로시간(-1.5%)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고 평가. 이날 발표된 고용지표들은 여전히 고용시장이 탄탄하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나, WSJ 에서는 월마트가 신규 시간제노동자의 임금 하향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하는 등 일부 산업군에서는 임금 인플레이 압력이 둔화되고 있다고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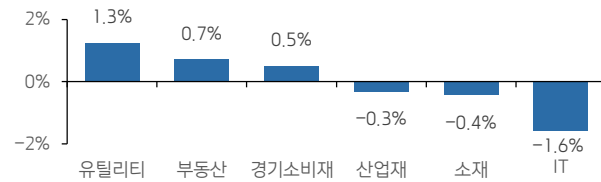
중국의 8 월 수출은 -8.8%(YoY)로 전월(-14.5%) 및 컨센(-9.0%)를 상회. 8 월 수입도 -7.3%(YoY)로 전월(-12.4%) 및 컨센(-9.0%)를 상회하는 등 중국 경기 둔화세가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 해관총서 측은 지난 8 개월 동안 민간 기업의 수출이 증가한 가운데, 기본적으로 중국의 무역이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

S&P500 & NA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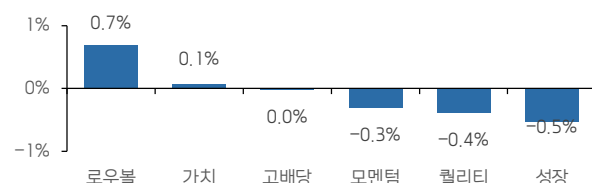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548.26	-0.59%	USD/KRW	1,335.21	+0.33%
코스피 200	336.74	-0.33%	달러 지수	105.05	+0.18%
코스닥	906.36	-1.26%	EUR/USD	1.07	+0.02%
코스닥 150	1,403.13	-1.76%	USD/CNH	7.34	-0.02%
S&P500	4,451.14	-0.32%	USD/JPY	147.28	-0.01%
NASDAQ	13,748.83	-0.89%	채권시장		
다우	34,500.73	+0.17%	국고채 3년	3.840	+6.5bp
VIX	14.40	-0.35%	국고채 10년	3.965	+6bp
러셀 2000	1,855.76	-0.99%	미국 국채 2년	4.947	-6.9bp
필라. 반도체	3,582.11	-1.98%	미국 국채 10년	4.244	-3.6bp
다우 운송	15,299.11	-0.49%	미국 국채 30년	4.341	-1.1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221.02	-0.41%	WTI	86.87	-0.77%
MSCI 전세계 지수	677.65	-0.35%	브렌트유	89.76	-0.93%
MSCI DM 지수	2,947.11	-0.29%	금	1942.5	-0.09%
MSCI EM 지수	973.59	-0.8%	은	22.95	-1.1%
MSCI 한국 ETF	61.74	-0.45%	구리	372.6	-0.6%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45%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1.18%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15%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333.04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2차전지 업종 외국인 순매도 지속 여부 2. 중국 아이폰 사용 금지 여파에 따른 국내 애플 밸류 체인 관련주들 영향 3. 장중 10 년물 금리 및 국제 유가 흐름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중국의 수출입, 독일 산업생산 및 유로존 2분기 경제성장률 부진은 미국을 제외한 지역의 긴축 부작용을 보여주는 결과. 유로존 2 분기 GDP 성장률은 0.1%(예상 0.3%, 1 분기 0.1%) 로 예비치 대비 하향조정되며 사실상 정체 상태를 기록. 이미 2 개 분기연속 경제성장률 역성장을 기록한 독일 7 월 산업생산은 MOM -0.8%(예상 -0.5%, 전월 -1.5%) 로 부진.

미 증시 역시 현재는 연준의 추가 긴축 불안이 우위에 있는 상태이나, 미국 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점차 과잉 긴축 리스크 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할 전망. 따라서 9 월, 11 월 FOMC 동결 전망은 유지하고 있으나, 경제지표 부진이 증시에 악재로 반영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시장의 변동성은 한번 더 확대될 수 있을 것.

전일 미국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최근 4 주간 예상치를 상회. 또한 미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기업이 직원들에게 생산량 1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지불하는 금액인 2 분기 단위당 노동 비용은 2.2%(예상 1.9%, 전분기 1.6%) 증가해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 그럼에도 노동부에서 생산량(+1.9%)이 늘어난 반면, 근로시간(-1.5%)이 감소했다고 평가한 점, 장기적인 경기 방향성을 나타내는 미국채 10 년물 금리는 하락했다는 점 등에 주목할 필요. 매크로 지표 외 기업단에서도 미국 최대 고용주인 월마트가 시간제 노동자 임금을 하향조정한다는 보도 역시 같은 맥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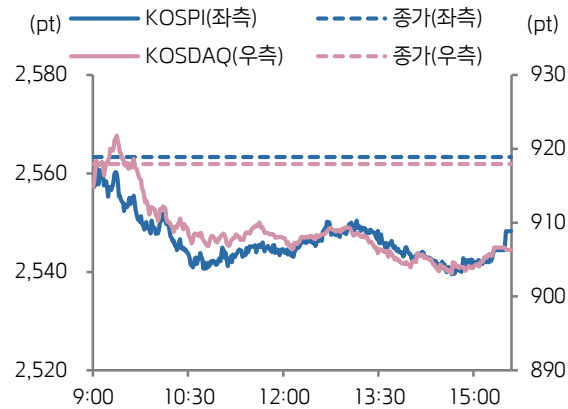
7 일(목) 국내증시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성장주 차익실현을 자극한 가운데 달러강세 및 원화 약세, 미 선물지수 낙폭 확대되며 하락마감. (KOSPI -0.59%, KOSDAQ -1.26%)

금일 역시 기술주 투자심리가 약화되며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원전, 조선, 바이오 등 개별 업종 호재에 따른 테마 장세 이어질 것으로 예상.

또한 EU 집행위원회의 '게이트키퍼'(DMA 상 규제 대상 기업) 리스트에서 삼성전자는 제외된 영향으로 소폭 강세를 보인 가운데, 2 차전지 업종 약세 지속되며 코스닥 하락을 주도. 특히 에코프로의 경우 MSCI 지수 8 월 31 일 종가 편입 이후 9 월 1 일~7 일까지 외국인은 순매도 전환, 장중 100 만원선을 하회하기도 함. 패시브 이벤트가 소멸된 가운데 개인들 역시 차익실현 욕구가 자극될 가능성이 크므로 9 월에 지수 상단이 제한된다면 AI, 자동화 로봇, 자율주행 테마와 더불어 점차 전장, 서버 반도체 관련주가 주목받을 수 있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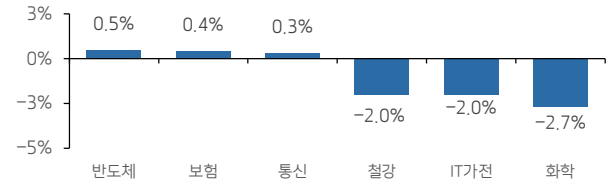
한편 주말 중 발표될 중국 8 월 CPI 는 YOY 0.1%(전월 -0.3%), PPI -2.9%(전월 -4.4%)로 컨센서스 형성. 8 월 수출입의 경우 수출 YOY -8.8% (예상 -9.5%, 전월 -14.5%), 수입 -7.3% (예상 -8.2%, 전월 -12.4%) 기록하며 차이신 서비스업 지수 호조와 함께 호재로 작용하여 지표 발표 이후 코스피 지수는 상승전환 시도했으나 지속성은 부족. 물가지수 역시 바닥 통과 기대감을 충족시킨다면 지난주 이후 모멘텀 둔화된 국내 중국 단체관광재개 관련주들이 재차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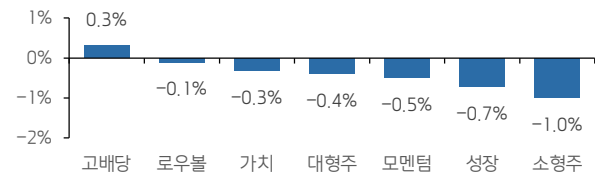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